

# 양성평등 국제현안 Vol.8

2016. 10.8 ~ 2016. 10.21

## ■ 여성 노벨상 수상자,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203명 중 여성은 2명이며 노벨 화학상 수상자 171명 중 여성은 4명에 불과함.
- ▶ 또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211명 중 여성은 12명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 112명 중 15명이 여성임.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된 노벨 평화상 129개 중 여성 수상자는 16명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76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함.
- ▶ 대표적 사례인 베라 루빈의 경우, 암흑물질의 발견이라는 획기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음. 일부 학자들은 노벨상 수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벨상의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음.

## ■ 독일 정부, 기업에 성별임금 동등성 데이터 작성 요구

- 독일 정부,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에 투명한 임금체계 요구
- ▶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평균 21%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독일 정부는 직원 200명 이상의 기업 근로자들이 비슷한 직위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대한 익명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에 매 5년마다 성별임금 동등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청함.

## ■ 중국의 혼인을 감소, 양성불평등이 원인?

- 지난 10년간 증가하던 중국의 혼인율은 2015년 감소하였으며, 혼인연령이 상승하였음.
- ▶ 특히 1970년대 이후 성별선택 낙태의 결과로 태어난 많은 미혼남성들은 도박, 매춘, 인신매매에 연루되기도 하는 등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짐. 한편, 중국의 2,30대 젊은이들은 더 이상 결혼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
- ▶ 중국의 도시 여성들은 직장에서 유리천장에 직면해있으며 농촌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결혼, 배우자와의 불평등, 결혼생활 중의 폭력 등 가부장적 전통에 고통 받고 있음.

## ■ 주요 기사

- 여성 노벨상 수상자,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Live Science, 2016.10.5.]
- 독일 정부, 기업에 성별임금 동등성에 관한 데이터 작성 요구 [The Guardian, 2016.10.7.]
- 중국의 혼인을 감소, 양성불평등이 원인? [US NEWS, 2016.10.11.]
- 전세계 도시에서 여성 시장 증가 [The Guardian, 2016.10.12.]
- 파키스탄 의회, 명예살인 처벌 강화 법안 통과 [The Guardian, 2016.10.6.]

## ■ 국제기구 및 MOU기관

- UNICEF
- ▶ 여아와 남아간의 불평등한 노동분배, 성 고정관념 고착시켜 [2016.10.7.]

## ■ 주요 기사

### ● 여성 노벨상 수상자,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 ▶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203명 중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함(1903년 마리 퀴리, 1963년 마리아 괴페르트 메이어). 많은 과학자들은 여성 수상자가 2명에 불과한 것은 노벨상과 노벨상을 수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함. 과학저술가이자 물리학자인 메튜 프란시스(Matthew Francis)는 그의 블로그에서 노벨상은 유럽 혈통을 지닌 남성을 편애하며 보통 유럽/미국 학자를 선호한다고 밝혔음. 그는 이러한 편견은 여성과 소수집단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더 큰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말함.
- ▶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의 이론 천체 물리학자인 찬다 프리쇼드 와인스타인(Chanda Prescod-Weinstein)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베라 루빈(Vera Rubin)의 사례를 지적하였음. 루빈은 은하수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은하계의 가장 큰 과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인 암흑물질의 존재를 입증하였음.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그리고 비과학자들) 그녀의 이러한 업적은 노벨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베라 루빈은 아직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음. 노벨상은 사후에 수여할 수 없는데 루빈이 현재 88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임.

-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부족한 분야는 물리학 뿐 만이 아님. 노벨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에 따르면, 171명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으나 이 중 여성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마리 퀴리(1911년), 마리 퀴리의 딸인 이렌 졸리오 퀴리(1935년), 도로시 호지킨(1964년), 아다 요나스(2009년). 여성은 의학, 문학 분야에서 좀 더 뛰어남.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211명 중 12명이 여성이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 112명 중 15명이 여성임.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한 129개의 노벨 평화상 중 여성 수상자는 16명임. 1969년 이후부터 수여되기 시작한 노벨 경제학상의 경우 76명의 수상자 중 여성은 단 1명 뿐임. 여성이 노벨상 후보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여성 수상자는 여전히 적음. 리제 마이트너(Lise Meitner)는 1937년~1965년 사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그마치 48번이나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후보에 올랐음(그녀는 1968년에 사망하였으며, 결국 노벨상을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음). 천체 물리학자인 마거릿 버비지(Margaret Burbidge)는 1964년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 못했음.
- 일부 학자들은 노벨상을 수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왜 여성 수상자가 적은지 알 수 있다고 말함. 첫째, 과학적 업적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 특정한 과학적 업적에 대해 처음 연구가 시작된 지 몇 십 년이 지나도록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공동 수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임-이는 과학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물리학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예를 들어, 일반적인 소립자 물리학 논문의 저자는 수백 명에 달하기도 함. 프리쇼드 와인스타인은 “연구팀에게 노벨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
- 노벨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Maria Von Konow는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의 유언장과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는 노벨상 후보의 기준을 정해 놓았다고 언급하였음. 노벨 평화상의 경우 단체에 수여해 왔지만, 노벨 물리학상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름. 이러한 규정을 바꿀 수 있지만-노벨 재단의 법규에 규정 변경을 위한 절차가 있음- 지금까지 이를 위한 조치는 행해지지 않았음. 프리쇼드 와인스타인은 과거에 누락되었던 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함. 예를 들어, 안토니 휴이시(Antony Hewish)와 마틴 라일(Martin Ryle)은 1967년 편서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음. 그러나, 실제적 발견은 전파망원경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자세히 조사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는 조셀린 벨(Jocelyn Bell)의 업적임. 프리쇼드 와인스타인은 “편서를 발견했지만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조셀린 벨의 사례와 같은 과거의 실수들을 소급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함.

- 노벨상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까? 프리쇼드 와인스타인은 노벨 위원회는 노벨상 수여 방식의 변화에 대해 좀 더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함. 프리쇼드 와인스타인은 “어떤 요인들이 고려되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어떻게든 백인 남성과 아시아 남성들이 상을 받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 선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윌리엄 아서 루이스경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유일한 흑인 남성이며[197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6명의 라틴계 남성이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하였음).”라고 말함. 노벨상 후보자 지명과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는 50년간 비밀로 유지됨. 따라서 1970년대, 1980년대에 더 많은 여성들이 후보자로 지명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향후 10년간 알 수 없을 것임. 예를 들어, 베라 루빈이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수상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음. 일부 학자들은 노벨상을 중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 프란시스는 “노벨상은 근본적으로 실제 과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문화의 가장 안 좋은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말함.[Live Science, 2016.10.5.]

#### ● 독일 정부, 기업에 성별임금 동등성에 관한 데이터 작성 요구

- 독일 정부는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에 더욱 투명한 임금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과 중도좌파 연합은 직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들이 비슷한 직위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대한 익명으로 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칙에 합의하였음. 독일 정부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들에 매 5년마다 성별임금 동등성에 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청할 예정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적 역할의 비교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임금을 세분화하는 점 기반 시스템(points-based system)을 도입할 예정임. 이러한 규정들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독일 내 약 1,400만 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임.
- 10개월 전 이러한 조치들을 제안한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인 마누엘라 슈베직(Manuela Schwesig)은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합의를 중요한 돌파구로 묘사하였음.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간의 논의는 이러한 규정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키고 ‘불신과 감시의 풍조’를 양산할 것이라는 기독교민주당의 우려 때문에 중지되기도 했었음. 이 규정들이 언제 법률화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평균 21%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높은 임금을 받는 분야에 여성들이 고용될 가능성이 적으며 여성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임. 이러한 요인들이 참작된다 해도 여성들은 여전히 비슷한 직위를 가진 남성에게 비해 7%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 독일 서부 지역의 경우 예전에 동독이었던 주들에 비해 성별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2015년, 예전에 동독이었던 지역의 성별임금 격차는 8%였으나 서부 지역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는 23%에 달했음. 독일은 세계경제포럼의 2015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뒤를 이어 11위를 차지하였음.[The Guardian, 2016.10.7.]

## ● 중국의 혼인을 감소, 양성불평등이 원인?

- 중국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현실이 되고 있음 : 중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중국의 혼인율은 지난 10년간 증가했으나 2015년 감소했는데 2014년에 비해 6.3%, 2013년에 비해 9.1% 감소하였으며 혼인연령이 상승하였음. 혼인율 감소, 혼인연령 상승은 전세계적 추세임. 미국, 대부분의 OECD 국가, 일본 모두 최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홍콩과 대만은 중국 본토보다 초혼연령이 훨씬 더 높음. 그러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진 중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남겨질 수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도 불안해하고 있음.
- 1950년대 이후 전통적인 중매결혼은 불법적인 것이 되었지만 중국의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결혼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일부 부모들은 ‘중매시장’에 모여 미혼자녀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음. 중국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있음. 2007년, 중국 교육부는 27세 이상의 여성들을 ‘남겨진 여성’이라 칭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으며 배우자를 찾을 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낮출 것을 촉구하였음. 2016년, 중국 정부는 ‘늦게’ 결혼하는(25세 이상의 남성, 23세 이상의 여성) 커플에게 추가로 7일간 더 주어지던 신혼여행 휴가를 취소하였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젊은이들이 자극을 받아 가능한 빨리 결혼하기를 희망하였음.
- 중국 정부는 특히 1970년대 이후 성별선택 낙태의 결과로 태어난 많은 남성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남겨진’ 남성의 수는 연령대에 따라,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미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관영 언론에 따르면 이들의 수는 2천 4백만명 또는 3천 3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보통 시골에 살고 있으며 빈곤한 이러한 미혼 남성들은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사회적, 성적 좌절감 때문에 사회의 안정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 인민일보의 최근 “남겨진” 남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보다 더 긴급한 문제라고 강조하였음. 인민일보는 시골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인용하였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도박, 매춘, 인신 매매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 20대, 30대 남성과 여성들은 모두 로맨스와 결혼생활을 지지하지만 법적제도로서의 결혼은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이 아님. 이전 세대에 비해 다양한 가치들을 접하며 성장한, 1980년대/1990년대에 태어난 중국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인생행로를 벗어난 다른 선택들을 고려하고 있음. 많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마지 못해 동반자 관계보다 일을 우선시하고 있음. 또한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여성 노동자들의 85% 이상이 매주 44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관계를 구축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함. 일부 젊은이들은 대안적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동거는 점점 더 흔한 일이 되고 있음. 또한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는 많은 책, 영화, 텔레비전 시리즈들이 있음. 현대적 오락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중국 도시인들은 배우자 없이도 멋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
- 젊은 중국 여성들은 특히 결혼 제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미혼 여성들이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며 사실 많은 미혼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어함. 그러나, 양성불평등이 지속되어온 중국에서 여성들은 교육, 직장에서의 차별을 견디고 있음.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 한 자녀 정책을 완화시켜 모든 부부가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가족이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을 고려하지 않았음.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자녀를 갖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중국 여성들은 이혼을 할 경우 실질적인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암울한 직업적 전망과 안전망의 부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이나 개인적 자유를 결혼과 바꾸지 않으려 함. 능력 있는 중국 도시 여성들은 친밀함과 자율성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들은 선택권이 있음. 시골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이 훨씬 더 적음. 가부장적 전통과 자본주의 경제로 인해 교육적/사회적 자원을 빼앗긴 농촌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결혼, 배우자와의 불평등, 또는 심지어 결혼생활 중의 폭력에 반대할 수 있는 힘이 도시 여성들에 비해 약함.
-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혼인을 감소를 잠재적 사회문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언론의 동정적 관심은 대부분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미혼 남성에게 쏠려있음. 언론은 미혼남성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종종 이는 여성들이 신랑 측 가족이 신부 측 가족에 지불하는 돈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어떤 때는 중국의 편향된 남녀성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가능한 해결책으로 빈곤구제 프로그램 또는 여성에게 1명 이상의 남편을

허용하는 것이 제안되어 왔음. 그러나, 직장에서 유리천장에 직면할 수 있는 도시 여성, 또는 결혼했지만 가부장적 전통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촌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없음. 결혼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음.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젊은이들에게 돌려주고, 가족친화적인 근로정책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US NEWS, 2016.10.11.]

## ● 전세계 도시에서 여성 시장 증가

전세계적으로 여성 시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파리, 바르셀로나, 몬테비데오, 프라하, 퀴른, 바르샤바, 부쿠레슈티, 로마, 바그다드는 최근 여성이 시장으로 선출된(바그다드의 경우는 임명되었음) 도시임. 전세계적으로 여성 시장의 비율에 대한 통계는 없으며 시장은 다양한 종류가 있음 : 직접 선출된 시장들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인지도가 높음 ; 다른 시장의 경우 시의회의 대표로 동료의원들에 의해 선출되었음 ; 일부 시장들은 정부가 임명한 것임. 지난달 헤이그에서 최초로 개최된 글로벌 시장 의회(Global Parliament of Mayors)에 참석한 57개 도시 시장 중 여성 시장은 9명이었음. 또한 이번 달에는 전세계 많은 도시의 시장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정상회담인 Habitat III에 참석할 예정임. Habitat III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도시 아젠다는 정부/지역정부가 “양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모든 분야/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참여와 동등한 권리 보장”을 포함한 도시 생활의 모든 측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2014년 4월 최초의 파리시 여성 시장으로 선출된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파리시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 2012년 엘렌 존슨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 대통령에 의해 라이베리아 페인스빌(Paynesville)시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임명된 Cyvette Gibson은 2014년의 대부분을 페인스빌시의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냈음. 그 이후 그녀의 시장 임기 중 쓰레기, 물, 위생은 주요 업무가 되었으며 또한 그녀는 전직 소년병들이 마약을 끊고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있음.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시의 여성 시장인 Vera Baboun은 그녀의 임기 동안 시 경계선을 수정하고, 이스라엘과 웨스트뱅크를 나누는 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베들레헴의 상업지구 문제를 처리하고, 관광객과 순례자들을 위한 충분한 숙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의회의 여성할당 20%를 차지하고 있는 3명의 여성 중 한 명인 Baboun은 다른 도시의 여성 시장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 그녀는 “모든 여성 시장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며 다른

여성들을 위해 그 길을 개척하고 있다.”라고 말함.

모든 여성 시장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페미니스트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여성 시장들은 대부분의 남성 시장들과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음. 브리스톨 대학의 정치/젠더학 교수인 Sarah Childs는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에 타 본 경험이 없다면, 많은 여성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도로, 철도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성과 여아의 도시생활이 남성과 다른 또 다른 원인임. 퀴른시 시장인 헨리에테 레커(Henriette Reker)는 작년 선거 전날 남성 공격자에 의해 목을 칼에 찔렸음. 이후 새해에 퀴른시에서 약 500건의 성폭력 사건이 보고되었을 때 레커 시장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낯선 남성들과 거리를 두라는 발언으로 인해 호되게 비난을 받았음. 레커는 그러한 발언은 그녀 자신의 트라우마가 잠재의식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함. 또한 작년까지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Montevideo)시의 시장이었던 Ana Olivera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인종적 평등, 성적소수자를 포함한 더 큰 투쟁의 일부로 보고 있음. 그와는 반대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소수집단이 아니지만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소외를 겪고 영향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른 소수집단-노인, 어린이, 인종적/종교적 소수집단-과의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The Guardian, 2016.10.12.]

## ● 파키스탄 의회, 명예살인 처벌 강화 법안 통과

파키스탄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획기적 법안은 25년의 징역형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소위 ‘명예살인’이라 불리는 범죄의 가해자를 법적으로 사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음. 그동안 이러한 관습 때문에 수많은 살해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음. 명예살인과 같은 범죄는 대개 가족 전체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운동가들이 수십 년간 반대운동을 벌여온, 이슬람의 ‘보상금’법에 따라 살해범들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음. 1990년 처음 제정된 ‘징벌과 보상금’법 때문에 명예살인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2015년에는 1,096건의 명예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음(실제 발생건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됨).

딸들과 자매들은 이른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살해되어 왔음. 여기에는 자신들이 직접 선택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가 포함되며 올해 발생한 한 명예살인의 원인은 친구가 연인과 도피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파키스탄 의회 양원의 협의 하에 통과되었으며 살해범이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친척들이 살해범을 사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살해범은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음. 새로운 법안을 처음 의회에 제출한 전직 상원의원 Sughra Imam은 “원 법안은 더욱 엄중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새로운 법안은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 명예살인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함.

- 올해 명예살인을 다룬 파키스탄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이후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살인과 관련한 법적인 허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음. 또한 파키스탄 의회는 재판의 속도를 높이고 DNA 검사를 규정하기 위한 강력한 성폭행 방지법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옛 이슬람법을 근거로 성폭행은 증언과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다고 말한 강경파 종교지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음.[The Guardian, 2016.10.6.]

## 국제기구

### UNICEF

#### 여아와 남아간의 불평등한 노동 분배, 성 고정관념 고착시킴

- 10월 11일 세계 여아의 날에 앞서 발표된 유엔아동기금의 보고서에 따르면 5~14세 여아들은 같은 나이 대 남아들에 비해 매일 무급 가사노동, 물 길기/땔감 모으기에 40% 더 많은 시간 또는 1억 6천만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기금의 보고서는 여아들이 요리, 청소, 가족구성원 돌보기, 물 길기, 땔감 모으기와 같은 가사노동을 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에 대한 최초의 전 세계적 조사결과를 다루고 있음. 데이터에 따르면 불균형적인 가사노동의 부담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9세 여아들은 같은 나이 대 남아들보다 매일 30% 더 많은 시간 또는 4천만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여아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는데 10~14세 여아들은 가사노동에 매일 50% 더 많은 시간 또는 1억 2천만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엔아동기금 젠더고문인 Anju Malhotra는 “무급 가사노동의 과중한 부담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며 여아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진다. 그 결과, 여아들은 배우고, 성장하고, 어린 시절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을 잃게 된다. 남아와 여아간의 이러한 불평등한 노동의 분배는 또한 성 고정관념을 영속시키며 전세대에 걸쳐 여성과 여아들에 이중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말함. 유엔아동기금의 보고서는 여아의 노동은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종종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함.

너무 자주, 다른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의 구성원을 돌보는 성인의 책임이 여아들에게 부과되고 있음.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여아들이 놀고, 친구들과 사귀고, 공부하고, 아이답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땔감을 모으고 물을 길는 일은 여아를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킴.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의 10~14세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약 2배 더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소비하고 있음.
- 남아들에 비해 10~14세 여아의 불균형적인 가사노동의 부담이 가장 큰 국가는 부르키나 파소, 예멘, 소말리아임.
- 소말리아의 10~14세 여아들은 가사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 : 매주 26시간

- 유엔아동기금 데이터/분석 책임자인 Attila Hancioglu는 “여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수량화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관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전세계 11억 명의 여아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타파하기 위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말함. 유엔아동기금의 보고서는 가사노동 뿐 만 아니라 폭력, 조혼, 여성할례, 교육 등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포함된 여아관련 이슈들에 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여아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재원을 제공하는 것은 여아를 위해 좋은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경제성장을 이끌고, 평화를 증진시키며, 빈곤을 줄일 수 있음.[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6.10.7.]